

에덴의 첫 공동체, 가정 (창 2:18-25)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본문 읽기 창세기 2:18-25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나옵니다. 여성의 창조와 가정의 창조는 인간이 본질상 관계적인 존재이고, 서로 협력하고 연결된 공동체라는 걸 보여줍니다.

1. 여자의 창조: 인간은 서로 협력/관계적인 존재이다!

창 1장에서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1:31)”고 하신 하나님이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 거하듯이, 인간도 혼자서 아닌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십니다. 여기서 돕는다(에제르)는 (부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기여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동등하고, 적절하고(suitable), 꼭 맞는 배필, 서로 반대되면서 협력하는 헬퍼/파트너입니다.

여성의 창조는 인간이 본질상 관계적 존재이며, 그 관계는 ‘타자성’을 전제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나와 전혀 다른 ‘타자’를 동등하게 여기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관계를 배우고, 윤리적 책임을 배우며,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결혼을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공동체는 우리의 인간성이 ‘관계’를 통해 자라고 꽃 핀다는 걸 보여줍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동물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창조적인 행위이자, 통치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담은 자신이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협력자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사명을 깨달는 동시에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귀한 선물-아내를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이 그 필요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인 내가 아니라, 관계 속에 함께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배워서, 하나님 안에 복된 가정과 관계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 가정의 창조: 가정의 연합은 모든 공동체의 원형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가 남자와 원래 하나이면서 동등한 존재, 가장 소중하고 친밀하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직접 이끌어 오십니다. 부부관계는 본질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남자(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이쉬아)라 부르리라” 아내를 만난 후에야 아담은 스스로를 남자(이쉬)라 인식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창 2:24은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주례사입니다. 유교문화를 포함한 대부분 문화는 부부관계보다 부모 자식 관계를 더 앞세웁니다. 하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부의 연합이 결혼의 비밀이며 가정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다른 모든 공동체적 관계의 바탕과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심장”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로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 되는 원리는 신부 된 교회와 신랑 되신 주님의 연합(엡 5:22-33),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넘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원리로 확장됩니다(엡 2:11-22).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비전을 가지고, 태초에 결혼을 창조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25절은 두 사람이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이상적 상태로서,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적 친밀함’은 윤리적 책임과 헌신, 결혼 안에서의 연합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 뜻,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혼돈 속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근원적인 힘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단절과 고독의 시대 속에 복된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를 바랍니다.

니눔 포인트

1. 모든 것이 좋았던 하나님의 처음 세상에서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18절)

하나님은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19-20절)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3.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21-22a절)

아담의 결혼을 누가 주도하시며,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22b-23절)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4.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첫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24-25절)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 주기도문